

만남

2019년 1월
통권 168호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리고 평화를 빕니다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주임신부 : 박 철 현 미카엘

신부님 칼럼	+ 새해 결심과 매일의 삶-----	3
소공동체 모임 자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	4
그리스도인의 유머	-----	7
교리	사회교리의 이해-----	8
기도 소개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하소서-----	11
영적 상담	-----	12
나눔	-----	14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	-----	15
공동체 소식	-----	16
지방 공동체 소식	-----	20
활동단체 모임 안내	-----	21
이 달의 전례 및 행사	-----	22
함부르크 한인천주교회, 월보 만남지 안내	-----	23
미사안내	-----	24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 복음화 지향: 성모님의 모범을 따르는 젊은이

젊은이들, 특히 라틴아메리카의 젊은이들이 성모님의 모범을 따라 복음의 기쁨을 세상에 전하라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새해 결심과 매일의 삶

새해에는 누구나 새로운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작심삼일의 그물에 걸려 좌초하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어떤 결심을 하게 되면, 꼭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아니면 결심한 대로 잘 진행되는 것 같으면서도 며칠만 지나면 게으름이라는 몹쓸병(?)에 걸리고 맙니다.

확실히 무언가를 결심하고 실천에 옮기는 일은, 여간해서는 이뤄낼 수 없는 정말 쉽지 않은 일인가 봅니다. 그래서 결심에서 실천까지가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뤄지는 사람들을 보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민 끝에 아예 어떤 결심이든지 결심한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그냥 순리적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새해가 새해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는 부작용이 따라오더군요. 그냥 평소와 같이 살자는 결심은 무언가 따로 결심하지 않고서도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니 뭔가 새 마음가짐을 가진다는 의미는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정쩡한 상황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갈등은 해마다 반복되지만 아직은 결심을 하지 않는 쪽이 좀 더 편합니다. 어차피 하루라는 시간은 날마다 새롭게 다가오는 것이니까요.

복음서를 살펴보면 예수님의 결심에 대한 이야기는 자주 등장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시겠다는 결심, 친구 라자로를 위해 길을 떠나는 결심, 요한의 세례를 받으시고자 하신 결심, 등등 이런 부분에서는 분명 예수님의 결심의지가 엿보이기는 하지만 예수님께서도 어떤 일을 미리 결심하고 그것을 실천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일이 더 중요했던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는 부분들이 훨씬 더 많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도 굳이 결심하지 않고 살아도 될 듯합니다. 대신 하루하루를 하느님의 뜻에 맞도록 살아가고자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겠지요. 새해도 하느님의 선물이고, 그보다 더 앞서서 하루도 하느님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어떻게 뜯어보느냐는 온전히 자신의 손과 발에 달려 있습니다. 하루 윈 종일 놀기만 한 것 같은데도 거기에서 적어도 하느님의 사랑을 느꼈다면 의미가 있을 것이고, 바쁘고 고되게 지냈는데도 하느님의 사랑을 느낄 여유조차 없었다면 의미가 있긴 해도 하루가 하느님의 선물까지는 아니었을 것입니다. 저는 매일매일 하느님의 선물을 펼치는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다(루카 3,15-16.21-22)

◆ 지난달에 정한 성구에 대한 생활 나눔을 잠시 하겠습니다.

시작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1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주님 초대하기

진행자 주님을 이 자리에 초대해 주십시오.
(초대기도가 힘들 때, 아래의 기도를 할 수도 있습니다)

- ❖ 주님!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여 주소서.
- ❖ 주님, 당신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게 하소서.

하느님 말씀

진행자 한 분이 루카복음 3장 15절에서 16절, 2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읽어 주십시오.

- 3 15 백성은 기대에 차 있었으므로,
모두 마음속으로 요한이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였다.
- 16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였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 오신다.
나는 그분의 신발 끈을 풀어 드릴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 21 온 백성이 세례를 받은 뒤에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를 하시는데,
하늘이 열리며
- 22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분 위에 내리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3 22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

진행자 다른 분이 다시 한 번 천천히 읽어 주십시오.

진행자 성경 구절이나 단어를 3번씩 기도하듯이 외쳐주십시오.

진행자 3분 동안 침묵하며 주님께서 각자 마음 안에 들려주시는 말씀을 들읍시다.

진행자 성경 말씀이 자신에게 어떻게 다가왔는지 나누어 봅시다.

(특별히 마음에 다가오는 말씀이 없을 때는 아래의 질문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세례를 받았을 때 마음이 어떠했는지, 또 나뉘는 체험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봅시다.

✱ 하나님의 마음에 드실만한 행동을 한 적이 있다면 나누어 봅시다.

한걸음 더 나아가기

진행자 모두 함께 읽겠습니다.

(또는 어느 분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세례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느 신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오랜 친구를 만나서 대화를 합니다. 친구가 묻습니다. “자네, 요새 천주교 신자가 되었다며?” “그렇게 됐네.”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도 많이 배워서 잘 알겠네?” “글쎄, 뭐 그렇게 아는 것이 없는데...”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묻겠는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나?” “모르겠는데.” “그러면 몇 살 때 돌아가셨지?” “그것도 모르겠는데.” “설교를 몇 번이나 하셨나?” “그것도 모르겠는데.” 대화가 이쯤 되니 믿지 않는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친구를 비웃기 위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는 예수님에 관해서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구먼.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는가?” 이때 예수님을 믿는 친구가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별로 아는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는 것 같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당에 다니면서 달라진 게 있다네.

그게 뭐냐 하면 하느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알기 시작했다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이 달라지는 것을 보고 스스로 놀라고 있다는 사실이네. 자네도 알다시피 3년 전까지 나는 주정뱅이요 빛도 많았고, 온 집안 식구가 나를 무서워했네. 모두가 나를 반가워하지 않았고, 또 반가워하지 않았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기에 더 화를 내며 살아왔지. 그런데 이제 모든 사람이 날 반가워하네. 그리고 몰랐는데 오래 전부터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되었네. 그 사실을 믿으니 정말 감사하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른다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친구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이 받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죄인들 틈에 서서 자기를 온전히 죽이고 머리를 숙이며 세례를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에 하늘에서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다.”라는 하느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세례를 받으시면서 세례의 참 의미를 보여주십니다. 세례는 단지 교리 내용을 알고 그것을 믿는다는 것을 넘어서서 하느님의 자녀로서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 뜻을 죽이고 그분의 뜻에 온전히 순명하며 살겠다는 결심이고 실천임을 잊지 맙시다.

생명의 말씀 정하기

진행자 한 달간 우리가 마음에 간직하고 살아갈 생명의 말씀을 정하겠습니다. 어떤 성구말씀이 좋겠습니까?

기타토의

진행자 지난달 우리 공동체가 결정한 실천사항을 어떻게 했는지 함께 나눠봅시다. 그리고 이번 달 우리 소공동체가 실천할 사항들을 함께 논의해 봅시다.

★ (실천사항 논의 후)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마침기도

진행자 마음에서 우러나는 대로 자유롭게 기도해 주십시오.

마침성가

진행자 가톨릭 성가 1장 “나는 굳게 믿나이다.” 2절을 노래하겠습니다.
(또는 전례시기에 맞는 성가를 선택합니다)

❖ 그리스도인의 유머 ❖

어느 날, 가짜 목사님, 가짜 신부님, 가짜 스님, 이렇게 세 사람이 모여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스님이 신부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헌금 들어 온 것을 어떻게 쓰시요?”

신부님의 대답은 “나는 땅에다 둥그런 원을 그려 놓고 돈을 하늘로 확 뿌려서 원 안에 떨어진 것만 내가 쓰고, 원 밖에 떨어진 것은 하느님의 일을 위하여 씁니다.”였습니다.

이번에는 신부님이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헌금을 어떻게 쓰시요?”

스님은 “나도 당신과 비슷합니다. 땅에다 원을 그려 놓고 돈을 하늘로 확 뿌려서 원 안에 떨어진 돈은 부처님의 일에 쓰고, 원 밖에 떨어진 돈은 내가 다 가집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스님과 신부님이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헌금으로 들어 온 돈을 어떻게 쓰시요?”

“나도 당신들과 비슷합니다. 나도 돈을 하늘로 확 뿌리면서 ‘주님! 가지고 싶으신 만큼 가지십시오.’ 하고 땅에 떨어진 돈은 내가 다 가집니다.”



1. 사회교리

사회교리는 한 마디로 사회와 경제생활에 관한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을 말합니다. 인간은 하느님 모상대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또한 구체적 시공간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교회는 인간이 사회적 존재로서 올바르게 살아가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복음의 빛으로 사회와 경제생활을 위한 올바른 기준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데 이를 통틀어 사회교리라고 합니다.

물론 교회의 사명은 인간 구원 또는 복음화에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선포하는 구원은 인간 안에 있는 영혼만의 구원이 아닙니다. 영혼과 육신으로 이뤄진 전체로서의 인간 구원, 곧 전인적 구원을 교회는 선포하고 그 구원을 위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전체로서의 인간, 온전한 인간은 추상적 존재가 아니라 사회 경제적 현실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인간은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의 삶이 사회 경제적 문제와 지속적으로 관련돼 있음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결코 복음화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로부터 교회는 사회와 경제생활에 관한 가르침, 곧 사회교리를 제시할 권리와 의무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가 사회생활이나 경제생활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는 인간에 대해서는 전문가입니다. 사회 문제나 경제 문제가 인간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기에 인간의 전문가인 교회는 사회 문제와 경제 문제에 대해서도 결코 무관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인간 발전에 도움이 되고 복음화에 기여하도록 사회 경제 생활에서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실천 지침들을 복음의 빛에 비추어 제시해왔습니다. 성경과 성전에 바탕을 둔 이 가르침들은 이미 초기교회부터 있었으나 특히 1891년 레오 13세 교황님이 ‘노동현장’이라고도 불리는 「새로운 사태」를 발표한 이후 역대 교황님들과 교황님과 일치리를 이루는 주교님들의 교도권을 통해 발전해 왔습니다. 이를 통틀어 사회교리라고 부릅니다. 다른 한편으로 사회교리는 교회가 믿어야 할 신앙의 도리로 가르치는 믿을 교리와는 다릅니다. 믿어야 할 신앙 진리들은 사회 변천이나 시대적 상황에 관계없이 한결같이 믿음으로 고백해야 하지만, 사회교리는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일부에서는 사회교리란 말 대신에 사회적 가르침, 혹은 가톨릭 사회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2.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 1

사회교리는 구체적 환경에서 판단 기준과 실천 지침을 제시하는 것이기에 시대와 상황의 변화에 따라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사회교리에는 변하지 않는 기본 원리들이 있습니다.

◇ 인간 존엄성의 원리

그 중에서도 가장 기본이 되고 바탕이 되는 원리는 인간 존엄성의 원리입니다. 인간은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된 가장 존엄한 존재입니다. 인간이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째, 인간은 현세적 차원에 국한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세상 안에 계시지만 또한 세상을 초월해 계시기에, 인간 역시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이지만 초월을 향해 열려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는 인간의 ‘초월적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실현됩니다.

둘째, 인간 존엄성은 다른 그 어떤 것에 의해서도 침해되거나 훼손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서 “사회 질서와 발전은 언제나 인간의 행복을 지향해야 하며, 인간이 사회 질서나 발전에 종속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치, 경제, 사회, 과학, 문화에 대한 모든 계획은 사회에 대한 인간의 우위성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교회는 강조합니다(「간추린 사회교리」132항).

◇ 공동선의 원리

공동선의 원리는 사회 생활의 모든 측면이 공동선을 지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동선이란 개인의 선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선을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개별 선의 단순한 종합이 공동선은 아닙니다. 공동선은 공동체 전체의 선이자 동시에 개개인의 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을 위해 공동체를 희생시키는 것이나 공동체 전체를 위한답시고 개개인을 무조건 희생시키는 것도 공동선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선과 개인의 선은 함께 합니다. 이것이 공동선입니다.

공동선의 원리는 모든 인간이 똑같이 존엄하며, 평등하다는 데서 나옵니다. 또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불어’ 또 다른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에서 연유합니다. 그래서 가족부터 단체, 기업체, 도시, 민족 공동체와 국가 공동체에 이르기까지 어떤 형태의 사회생활도 공동선의 문제를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개인적으로뿐 아니라 공동체적으로도 공동선을 지향합니다.

3. 사회교리의 기본 원리 2

◇ 보조성의 원리

보조성의 원리는 상위 질서의 사회는 하위 질서의 사회들에 대해 도와주는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것에 대해 중앙정부가 개입해서 간섭하는 것은 보조성의 원리를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보조하고 지원하는 자세를 지녀야 합니다.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정에서 자녀가 할 수 있는 것을 부모가 나서서 다 해주거나 부모에게 다 미루는 것도 어떻게 보면 보조성의 원리에 위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조성의 원리가 잘 지켜질 때 사회 중간 단체들은 그들 고유의 임무를 다른 상위 단체들에게 부당하게 양도하도록 강요받지 않고 제 임무를 적절히 수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조성의 원리가 잘 지켜지지 않을 경우에는 사회 중간 단체들은 결국 상위 단체들에 흡수되거나 대치되어 고유의 품위와 본연의 위치를 잃게 됩니다. 따라서 보조성의 원리가 잘 지켜지려면 하위 단체와 상급 단체 양측 모두의 적절한 처신이 요청됩니다.

◇ 연대성의 원리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이 사회에 대해, 사회는 개인에 대해 서로 의존하며 서로 책임을 진다는 것입니다. 연대성의 원리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서뿐 아니라 집단과 집단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는 인간이 본성적으로 사회적 존재이며 또한 평등한 존엄과 권리를 지닌다는 데서 연유합니다.

이 연대성의 원리로 인해 인간은 다른 사람이 또는 다른 집단이 겪는 곤궁과 비참과 불의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안 됐다.”고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선을 위해 투신하려는 결의를 굳히게 됩니다. 따라서 연대성의 원리는 모든 사람이 서로 깊은 유대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도록 해줍니다.

인간 존엄성의 원리를 바탕으로 하는 공동선의 원리와 보조성의 원리, 그리고 연대성의 원리는 사회생활의 모든 국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은 물론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나 단체의 삶을 이 원리들에 비추어 점검해보고 이 원리들을 실천하는 방향으로 바로잡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새해에는 이렇게 살게 하소서(신경희)

새해에는 나무가 되게 하소서.
뜨거운 햇살 아래 쉴 곳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조용히 그늘을 내어 줄 수 있는
넉넉한 나무가 되게 하소서.



새해에는 강물이 되게 하소서
목마름에 지쳐있는 모든 이들 갈증으로 허기진 이들
마음을 적셔줄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적셔줄 수 있도록 하소서.



새해에는 꿈을 잃지 않게 하소서.
상처 난 날개 움츠러들고 고단함에 지친 날개
다시 펼 수 있도록 새해에는 새 날개를 주소서.

새해에는 일어나게 하소서.
절망 앞에 무릎 꿇지 않게 하시고
휘청되는 흔들림에도 오뎅이처럼 일어날 수 있는 새 희망을 주옵소서.

새해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는, 내 주어도 아깝지 않는
따뜻한 사랑을 풍성하게 하시고
아픔까지도 품을 수 있는 진실한 사랑을 주소서.



새해에는 보석이 되게 하소서.
그리하여 진흙 속에서도 빛을 발하고
어둠속에서도 빛을 낼 수 있는 우리로 만들어 주소서.

질문

판공성사 때마다 저 자신에 대해 깊은 실망감을 느낍니다. 사순시기가 시작 되면 죄를 짓지 말고 살아야지 하고 결심하지만 정작 고해성사를 보려 성찰을 하면 늘 같은 죄를 반복하는 한심한 제 모습에 마음이 괴롭습니다. 제가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어떤 열심한 분이 저를 한심하다는 듯한 눈으로 “기도생활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더 기도해야 한다면 어디까지 해야 하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그렇다고 온종일 기도만 해야 하는지 고민입니다.

답변 - 홍성남 신부님(가톨릭 영성 심리 상담 소장)

자매님 고민은 자매님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많은 신자분들이 하는 고민이고, 저 역시 젊은 시절 가졌던 고민이기도 했습니다. 예전에 교리를 배우신 분들은 죄와 지옥 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특히 고해성사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신앙생활은 죄를 짓지 않는 생활이라 생각하는 분이 많습니다.

물론 죄를 짓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죄를 짓지 않는 것에 국한한다고 생각한다면 오히려 하느님께 가기가 더 어려워지고, 신앙생활이 무거워지고, 심리적으로 신경증적 억압현상이 생겨서 삶이 우울하고 힘겨워질 수도 있으니 주의할 일입니다.

우선 신앙생활에 대한 개념을 업그레이드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히 죄를 짓지 않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에 희망과 구원을 주시는 주님을 맞아들이는 삶이라고 좀 더 눈을 들어 생각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 죄를 사해주러 오는 분이시고, 죄의식에 짓눌려 사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러 온 분이십니다.

우리가 자기 죄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신의 한심한 모습만 보고 우울해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자학행위, 병적 신심입니다. 자매님을 보고 믿음이 약하다고 하신 분은 정신적으로 그리 건강한 분이 아니니 멀리하시고 하느님을 만난 기쁨을 이야기하는 분들을 가까이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란 것을 아서

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천사처럼 영적 존재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안고 사는 한계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즉, 내가 선택하는 행동은 나의 의지만으로 하기가 어렵고, 많은 경우 무의식적 충동으로 하기에 머리로는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몸이 말을 안 들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머리와 몸은 심리적 현상을 상징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본의 아니게 죄를 지을 때도 있고 의지의 심약함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허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늘 같은 죄를 반복해 짓고 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죄는 필요 없는 것, 절대적으로 없애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많으신데 일견 옳은 생각이지만 죄를 보는 시각을 좀 다른 각도에서 가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 아우구스티노는 “죄가 있는 곳에 은총도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 만약 나는 터럭만큼 죄도 짓지 않는 순결한 존재라는 생각을 가지면 ‘루치펠 콤플렉스’에 걸립니다. 루치펠은 하느님을 거부한 대천사 사탄입니다. 자신이 완전하기에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함부로 하고 싶은 교만 욕구에 걸려들어 회개 없는 삶을 삽니다. 또 하느님 이름으로 일은 하지만 하느님은 뒷전이고 자신이 하느님 역할을 하려는 콤플렉스에 걸려 사람들 마음에 상처를 주는 짓을 서슴없이 하는 어두운 영혼이 되고 맙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죄의식은 불편하지만 나를 하느님과 사람들 앞에 겸손되이 서 있게 해주는 ‘은총의 도구’이기도 합니다. 자기 성찰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나는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변화하지 못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가 하는 식으로 심하게 질책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 상태가 바로 심리적 연옥이자 지옥입니다.

자기 성찰은 자신의 죄를 들여다보면서 우리가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음을 깨닫고 오로지 자기 정진을 위한 마음을 가다듬는 시간이자 죄 중에 사는 우리에게 끊임없이 기회와 사랑을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죄의식에 사로 잡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신앙보다는 잘못을 하면서도 하느님께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야말로 자신을 편하게 만들어주는 신앙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주팔자가 아닌 확실한 하느님 은총으로(살레시안 칼럼에서)

과학기술이 날로 발달하여 전철이나 버스가 내가 있는 곳으로 언제 도착하는지 안내판과 스마트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저도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주로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제가 타야 할 전철이나 버스가 언제 오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시간에 맞춰서 집을 나섭니다. 그러다 보니 대중교통을 마냥 기다리며 허비되는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서 좋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서 좋습니다.

만일 전철이나 버스를 놓쳤다고 하더라도 다음 차가 언제 도착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 초조하게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요즘엔 비행기가 어디쯤 왔고, 어떤 기종이며, 고도가 얼마이며, 어떤 향로로 왔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 참 좋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요즘엔 교통수단뿐만 아니라 웬만한 것들을 예측하며 삽니다. 예측을 하다 보니 앞으로 맞이할 것들에 대해 안심 또는 걱정을 먼저 하게 됩니다. 어쩌면 앞으로 닥칠 일을 어느 정도 알기에 미리 대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사람을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두려움과 걱정 때문에 의욕이 꺾이는 일도 허다합니다.

‘예측’이라는 기능이 현대 기술의 힘이라고 한다면, 무당을 찾아가 점을 보거나 사주팔자를 보는 것은 이 시대의 흐름에 맞게 잘 흘러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미래를 미리 본다는 것이 아주 오래 전부터 성행했던 것이라면 인류는 아주 오래 전부터 혁신적인 미래 기술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영똥한 결론을 내리면서 이에 대한 합리화를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싸한 논리입니다.

이에 반해, 운명과 사주를 믿지 않는 천주교 신앙은 너무나 현실만을 강조하고 앞날을 미리 내다보고 대처하도록 준비시키는데 더디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한 점쟁이를 찾아가서 사주팔자를 보거나 앞으로 닥칠 일을 확인하고 그것에 맞게 신앙인으로서 하느님의 뜻을 따르며 살면 되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심심찮게 접합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에도 예언자가 있었으니 앞날을 미리 알고 이에 대처하도록 하는 것은 옳은 일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앙을 수호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

는 앞날에 흔들리기보다 하느님 안에서 지금 이 순간을 충실히 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봐!”

물론 앞날을 미리 알고 그것에 대처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점을 봐서 예측한 일이 반드시 일어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대체로 통계에 따른 점괘를 낸다고 누군가 이야기 하더군요. 이러이러 하면 저러저러 하니 요래요래 하라는 식은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에 가서 본 것을 직접 알려주는 것이 아닙니다. 어쩌면 드라마에 폭 빠져 사는 사람이 앞으로 전개될 드라마의 흐름이 무엇인지 줄줄 꿰차고 있는 것이 더 정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불확실한 미래의 일에 얽매임으로써 오늘을 헛되이 보내거나 희망고문에 시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괜한 소문에 마음을 두고 신경을 쓰고 그 소문에 안주하기보다,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느님께 믿음을 두고 정당하게 살며 은총과 섭리 안에서 굳건해 질 때, 앞으로 마주치게 될 미래를 더욱 잘 대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정확하고 진정한 예측은 “하느님께서서 나를 정말 사랑하시고 은총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가 아닐까요? 헛된 환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부정할 수 없는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 머물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 기쁘고 희망차게 보내면 좋겠습니다.



❖ 미소 짓는 그리스도인 ❖

얼마 전 컴퓨터 자동번역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외국어 실력이 짧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어느 정도일까? 호기심을 품은 어느 신부님이 마르코복음 14장 38절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와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 가운데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말을 듣지 않는구나.”를 선택해서 한 번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 구절을 러시아말로 번역하라고 했더니 이런 엄청난 말이 되어버렸습니다. “유령은 질기나 고기는 연하구나.”



❖ 1월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4일	엘리사벳 앤 시튼	김 산	27일	안젤라(메디치)	최 희 주 민 경 은 배 소 라
21일	아네스(Agnes)	유 곡 지	28일	카롤리네 (St. Karoline)	김 계 희
		김 잔 디		토마스 아퀴나스	백 정 선
		정 진 아	31일	요한 보스코 (St. John Bosco)	강 석 길
김 혜 원					
		정 인 실			
		정 선 미			

❖ 1월 지방공동체 영명축일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일	마리아	이복심(B) 신유민(H)	19일	마리오	김형철(O)
5일	시메온	김석주(H)			
8일		Giersberg Sigrid(O)	21일	아네스 (St. Agnes)	강나래(H) 정순자(H) 김혜경(O) 이인영(B)
17일	안토니오 (St. Antony)	문철주(H)	27일	안젤라	김영희(H)
18일	크리스티나	김미영(O)	28일	토마스 아퀴나스	고광완(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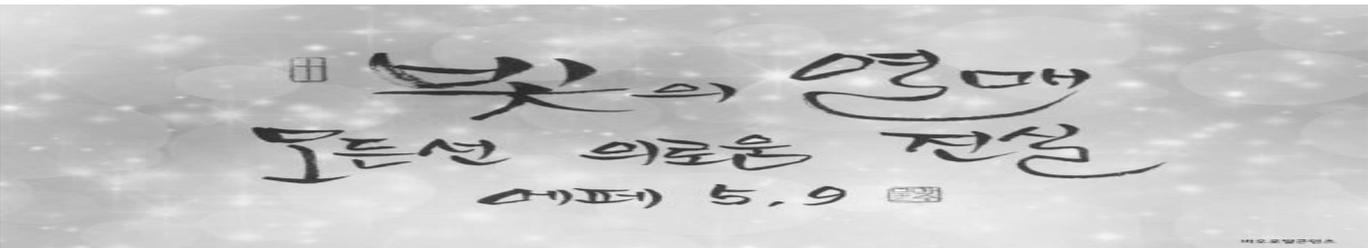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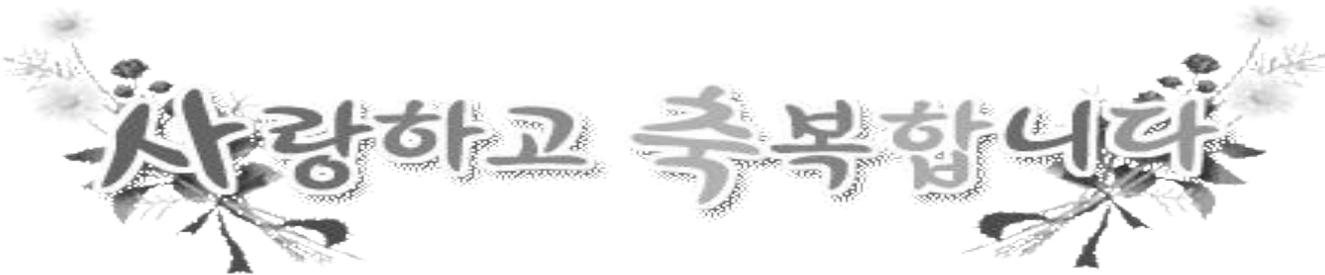


❖ 1월 성가번호 ❖

1월	입 당	봉 헌	성 체	파 견
1일	44	513	165	241
6일	487	511	176	102
13일	481	221	156	1
20일	329	215	170	61
27일	찬 양 미 사			

❖ 1월 미사 전례 봉사자 ❖

1월	독 서	제 병 봉 헌	복 사	커피 봉사
6일	최화영(시몬) 최종금(로사)	이철우(아우구스티노) 이영희(체칠리아)	남궁춘배(바르톨로메오) 최장용(레오)	요셉 마리아회
13일	이수웅(필립보) 김순임(안나)	김동수(시몬) 강신자(벨라렛다)	주일학교	1구역
20일	이정훈(요나스) 서유미(레지나)	배성우(도미니코) 심은희(안나)	청년회	2구역
27일	정명옥(살로메) 김매자(베로니카)	김잔디(아그네스) 김경미(이사벨라)	주일학교	3구역



❖ 우리들의 정성 ❖

주 일	11월 25일	12월 2일	12월 9일	12월 16일
주일헌금	240.34	243.74	304.39	226.87
헌납금	80	150	170	
구작입금	11월 25일부터 12월 16일까지 총 470.00 * 헌납금 총 합계 870.00			

❖ 자진헌납금 ❖

2018년 11월 25일 - 2018년 12월 18일 자진 헌납금 납부자 명단

◆ 헌금납부 :

정명옥, 노정자, 김기연, 김경미, 김건, 배성우, 김효정,
 박춘실, 김경열, 박성아, 김민옥, 이종하, 이수웅, 이현목,
 이경규, 이정수, 윤석순, 윤예진, 진윤희, 강신행, 우동천,
 심동근, 이(박)정은, 강순행, 황영선, 서세원, 손수희, 최장용,
 최승진, 현영애, 정마리아 Schuster, 신옥희, 문수진 Sebastian,
 김계희, 김용일, 방은일, 이공종, 한말조,

◆ 구작입금 :

정숙 Alice Eilinghoff, 최화영, 옥수 Ranitzsch, 김형웅, 김부남,
 최현봉, 이석우, 김대현, 김유석, 영희 Huber-Pahk, 강일남,
 홍종각, 육종인, 백정선, 남궁춘배, 최순남, 김동수, 홍경영,
 김진호, 이영원, 허두욱, 이정훈, 김치수, 영희 Eggerstedt,
 이명원, 이상봉, 허길조, 방조영자, 허채열, 권지연Rabe,
 이성원, 박준병, 최성자, 정정숙, 서유미, 김원자, 이철우

※ 납부자 중 월보에 기재가 되지 않으신 분들은 꼭 총무님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자진헌납금은 한인 천주교회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 Hamburg 공동체 소식

1. 2019년의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한해를 아름답게 꾸미실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2. 1월 1일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세계 평화의 날 미사를 봉헌합니다. 미사는 만남성당 강당에서 봉헌하며, 미사 후에는 신정을 맞이하여 떡국을 함께 나눠 먹을 예정입니다.
3. 1월 6일 일요일 주일미사 후에 사목월례회가 만남성당에서 있습니다.
4. 1월 8일 화요일에는 믿음의 샘 꾸리아 월례회가 있고, 1월 9일 수요일에는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모임이 있으며, 1월 11일 금요일에는 2구역 소공동체, 1월 13일 일요일에는 청년 소공동체, 1월 24일 목요일에는 연례회 월례회, 1월 25일 금요일에는 4구역 소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5. 1월 27일 일요일 주일미사는 찬양미사로 봉헌합니다.
6. 2월 2일 토요일은 주님 봉헌 축일입니다. 교회의 전통에 따라 이 날, 일년 동안 사용할 초를 축복합니다. 10시에 미사를 봉헌하고 초 축복식이 있을 예정입니다.
7. 2월 3일 일요일에는 2월 5일 화요일 설 명절미사를 앞당겨 봉헌합니다. 합동위령미사 예물은 미리 준비해 주시고, 미사 후에는 각 가정에서 음식을 한 가지씩 준비하여 풍성하고 기쁨이 넘치는 설 명절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8. 2월부터는 매달 넷째 주일에 봉헌하는 찬양미사를 독일어로 봉헌하고자 합니다. 독서와 복음, 성가, 전례문은 독일어로 봉헌하고 강론만 한국어로 봉헌하고자 하오니 협조 부탁드립니다.
9. 2월 중에 Ansgarwoche의 행사 중 하나로 Kulturabend가 kleine Michel 성당에서 있을 예정이오니 미리 기억하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게시판을 참조해 주십시오.

※함부르크 대주교님께서는 각 미션 교회가 독일 공동체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것을 권고하셨습니다. 함부르크 교구에서 주최하는 모든 신앙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길 청합니다.

❖ Bremen 공동체 소식

1. 소공동체 모임 : Bremen : 매월 3째 주 수요일 14시 Tel. : 0421255162
 Visbek : 매월 3째 주 토요일 14시 Tel. : 04445/2431
2. 12월 미사는 12월 8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대림2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후에 성탄을 맞이하는 축제로 산타가 와서 모든 교우분들께 선물도 나누어 주셨고, 청년반에서도 산타가 와서 어르신들을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즐거운 성탄 잔치였습니다.
3. 아울러 김순자(젤뜨루다)자매님께서 생신 잔치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준비하셔서 더 화기애애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날, 서수연(소냐)자매님이 뮌헨에서 브레멘으로 다시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4. 최모란(체칠리아) 자매님이 Heidelberg 교향악단에 취직이 되어 우리 공동체를 떠나십니다. 앞으로 하시는 일에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5. 2019년 1월 미사는 1월 5일 토요일 오후 5시에 St. Hedwig 성당에서 봉헌합니다. 미사 후에 설 잔치로 떡국을 준비합니다.

❖ Hannover 공동체 소식

1. 매월 첫째 주 수요일 15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공동체 소공동체를 합니다.
2.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6시 안토니오 성당에서 청년 소공동체를 합니다.
 담당자 : 김명수 마태오 0151 2910-3699
3. 12월 공동체 미사는 12월 2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했습니다.
4. 1월 공동체 미사는 1월 19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안토니오 성당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Osnabrück 공동체 소식

1. 12월 오스나브뤼크 공동체 미사는 12월 15일 토요일에 대림 제3주일 자선주일 미사로 봉헌하였습니다. 미사 전에는 프란치스코 교황님에 대한 영화를 보았고, 미사 후에는 신부님과 함께, 각 가정에서 준비한 장기자랑을 하며 즐거운 성탄파티를 하였습니다. 이날 미사에는 장기철(요한) 형제님과 자녀 원준, 예준, 사라, 그리고 조카 민주 양이 함께 하였습니다.
2. 12월 기도모임은 12월 31일(월) 오후 5시에 설윤자(헬레나) 자매님과 Lukas 형제님 댁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3. 2019년 1월 공동체 미사는 1월 12일(토) 오후 5시에 Pernickelmühle에서 봉헌할 예정입니다.

❖ 활동단체 모임 안내 ❖

사목 협의회	매월 첫째 주일미사 후	만남성당	회장	한말조(마리안나)	
			부회장	배성우(도미니코)	
			부회장	권지연(안드레아)	
			전례부장	문경영(아가다)	
주일 학교	매주 주일미사 후	예수성심성당	교감	최영자(파올라)	
연령회	매월 넷째 목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회장	최영숙(데레사)	
예비자교리	매월 첫째 주일미사 전 13시	예수성심성당	복음화	회장 대리	
레지오 마리아	민음의 샘 C.	매월 첫째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허명자(가밀라)
	자비의 모후 P.	매주 화요일 17시 30분	만남성당	단장	이순자(마리아)
	평화의 모후 P.	매주 수요일 오전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현영애(헬레나)
	사랑의 모후 P. (정년)	매주 목요일 저녁미사 후	만남성당	단장	박성아(베로니카)
구역	1구역	구역장	김매자(베로니카)		
		총무	신옥희(비아)		
	2구역	구역장	이영희(체칠리아)		
		총무	허영란(엘리사벳)		
	3구역	구역장	김형웅(야고보)		
		총무	이경구(안스카)		
	4구역	구역장	방조영자(젬마)		
		총무	육종인(베로니카)		
청년회	매월 둘째 주일미사 후	회장	서유미(레지나)		
		부회장	이정훈(요나스)		
요셉, 마리아회	매월 둘째 수요일 평일미사 후		회장	심은희(안나)	
여성 봉사회		실무 책임		김매자(베로니카)	
				이정옥(크리스티나)	
				허명자(가밀라)	
				심은희(안나)	

1월 중 행사 예정표

일	요일	전례일	단체 행사	비고
1	화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세계 평화의 날)	떡국 나눔	15시 만남 강당
2	수	성 대 바실리오와 나지안조의 성 그레고리오 주교 학자 기념일		
3	목	주님 공현 전 목요일		
4	금	주님 공현 전 금요일		
5	토	주님 공현 전 토요일		브레멘 공동체
6	일	주님 공현 대축일	사목월례회	
7	월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월요일		
8	화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화요일	믿음의 샘 뿌리아	
9	수	주님 공현 대축일 후 수요일	요셉, 마리아회 소공동체	
10	목	주님 공현 대축일 후 목요일		
11	금	주님 공현 대축일 후 금요일	2구역 소공동체	
12	토	주님 공현 대축일 후 토요일		오스나브뤼크
13	일	주님 세례 축일	청년 소공동체	
14	월			
15	화			
16	수			
17	목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18	금	일치 주간		
19	토			하노버 공동체
20	일	연중 제2주일		
21	월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22	화			
23	수			
24	목	성 프란치스코 살레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연령회	
25	금	성 바오로 사도의 회심 축일	4구역 소공동체	
26	토	성 티모테오와 성 티토 주교 기념일		
27	일	연중 제3주일(해외 원조 주일)	찬양미사	
28	월			
29	화			
30	수			
31	목	성 요한 보스코 사제 기념일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

본당신부 박 철 현 미 카 엘
사목회장 한 말 조 마 리 안 나
주 소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Tel : 040 24 34 92
Fax : 040 24 87 44 38
홈페이지 <http://mannam.cathms.kr/>
E-mail : hmannam@gmail.com



Bankverbindung

Erzbistum Katholische Koreanische Gemeinde(Mission)
Hamburger Sparkasse
Konto Nummer Haspa
IBAN DE 84 20050550 1230 126 136
BIC HASPDEHHXXX

❖ 월 보 만 남 ❖

편 집 인 박 철 현 미카엘 gruess8823@gmail.com
본당 신부님 H.P : 0176 4321 9708

*** 월보 만남지는 공동체 여러분의 참여로 이루어집니다.**

원고 내용은 함께 하고픈 기도, 화살기도, 묵상 글, 좋은 글, 살아가는 이야기 등입니다. 원고를 보내 주실 분은 매월 20일까지 편집인에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은 A4용지 1장 정도가 적당합니다.



❖ 미 사 안 내 ❖

함부르크 한인 천주교회

본당 주일 미사 (고해성사는 미사 30분 전, 미사 10분 전 교리)

시간 : 매주 일요일 15:00

장소 : 예수 성심 성당(Herz-Jesu-Kirche)

Bei der Hammer Kirche 12, 20535 Hamburg

평일 미사

시간 : 매주 화, 목요일 19시, 수요일 오전 10시

둘째 금요일 17시 30분(2구역 소공동체)

넷째 금요일 16시 00분(4구역 소공동체)

장소 : 만남성당, Am Mariendom 5, 20099 Hamburg



지방 공동체

Bremen

시 간 : 매월 첫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St. Hedwig

Kurt-Schumacher Allee 62, 28327 Bremen

연 락 처 : 김영숙(아나스타시아), Tel : 04202 71888

H.P : 0172 9593611

Osnabrück

시 간 : 매월 둘째 주 토요일 17시

미사장소 : Dom-Gemeindehaus(Pernikel Mühle)

Mühlenstraße 6, 49074 Osnabrück

회 장 : 노금순(데레사), Tel : 0541 5062637

Hannover

시 간 : 매월 셋째 주 토요일 16시

미사장소 : Kirchröder Straße 12a, 30625 Hannover

연 락 처 : 김명수(마태오), H.P : 0151 29103699

